

박창수씨
시신탈취

공권력 의한 두번의 죽음

기동취재-故 박창수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투신

6공돌이 하루평균 1.1명의 노동자가 구속될 정도로 극심한 노동운동탄압을 일삼던 정권이 마침내 박창수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탈취를 탈취해 갔다.

안양병원에서 숨진채로 발견된 박창수씨의 시신을 사수하던 사람들이 경찰을 향해 돌진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 맞췄다. 이 때 경찰의 폭력으로 많은 사람이 중·경상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구속되었다.

두말할것없이 법적인 절차, 경위를 떠나서라도 영안실벽에 구멍을 뚫고 유족들까지 끌어내며 시신을 탈취해가는 것은 정권이 일방적인 독재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것은 금년들어 강경일변도로 바뀐 노동운동탄압의 가장 극명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11일 박창수씨가 연대회의에 참가후 구속의 빌미가 된 '제3차개입금지법'이란 것도, 노동운동탄압을 위한 부속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박창수씨의 죽음이 알려지고 난 후 안양, 수원지역의 노동자, 학생들이 찾아와 시수대를 편성하고 전노협, 노순협, 한진중공업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러나, 이튿날 병원을 전문봉쇄한 1천여명의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영안실에 진입, 시신을 가져갔다. 그리고 일방적인 부검을 실시해, 박창수씨의 사인은 심장·폐파열, 폐출혈, 다기관 절상상으로 인한 추락사라고 단정지어 버렸다.

이후 경찰은 6층에 유가족을 격리시키고 병원주위를 봉쇄해 식사 및 음료수제공마저 막았다. 또한, 지난 10일 유가족을 제외한 15명의 재인사를 연행함으로써 유가족과 외부의 완전 차단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일방적 부검과 박창수씨 죽음에 대해 강한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 시신을 탈취하고 단독으로 부검을 실시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박창수씨가 안양병원으로 이송되게된 이유인 머리의 상처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치소에서 공놀이 도중 생긴 상처라고 밝혔지만



◇지난 7일 경찰이 영안실 벽을 부수며 난입하는 모습

일방적인 부검강행, 사인에 의혹질어 사건 왜곡에 맞서 대규모 집회 계획

부인 박기선씨의 말에 의하면 폭력살인규탄에 대한 구호를 외치며 항의투쟁을 하다가 다쳤다고 한다.

또한, 병원 7층 20여미터의 높이에서 추락한 시신이 외상 없이 반듯이 누워진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 링겔병을 들고 삼엄한 교도관의 눈을 피해 7층 옥상난간을 넘었다는 점 그리고 평소의 낙천적인 성격과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등은 경찰의 태도와 더불어 사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의 죽음이 타살이나 자살이나의 규명도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노조적인 민중운동탄압이 가장큰 원인과 더불어 박창수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체회의의 관계자인 기동동(전노협정재위원)씨는 "노동운동탄압과 최근의 폭력살인사건으로 인한 노조적인 투쟁이 박창수씨의 죽음으로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 노동자의 죽음이란 점이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투쟁의 역량을 모아 현재 전체투쟁에서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9투쟁에서 많은 노조가 파업과 함께 반민자당의 깃발을 들었으며, 11일에는 범국민대회의의 주축로 '故 박창수씨 원상복구'와 '원진례이후'는 직업살인 규탄대회'가 15일이후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높은 투쟁이 계획되어 있다.

故 박창수위원장의 죽음은 5월 정국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단순한 의문사가 아니라 끊이지 않는 노동운동탄압과 커다란 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원진례이후는 사건과, 메이데이 이후 노동운동의 구성점으로 그리고 5·18투쟁과 맞물려 노조적인 투쟁의 한 바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권의 사건 은폐, 왜곡의 음모와 이에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어떤 시국하에도 계속되는 노동운동탄압에 대한 대응투쟁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지환기자)

전선에서 온 메시지-현시기 투쟁과제

필자가 원고에 채 손이 닿기도 전에 또 한명의 청년이(전민련 간부, 김 기철) "노태우정권을 타도하자"며 분신투쟁을 감행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번 실패하고 패배했지만 단 한번의 결정적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오고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또 한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가 없다. 절망과 회의를 딛고 승리에 대한 낙관으로 민중투쟁의 강력한 대의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자신들의 말은바 책임을 지고 성실히 수행해야한다. 분노와 열정을 식히고 냉철한 이성으로 각 정치세력의 입장과 대응을 주시하고, 올바른 지도와 계획하에 일관된 투쟁을 해야한다.

1. 강경대 죽음의 실체

검찰은 이 사건을 "시위집단들의 무시한 전경들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단순치사 사건이다"라고 축소, 조작하며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현재 전국민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혁명적 상황에 대하여 자신감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노태우 또한 과거 6월항쟁과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오만한 발언을 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단순한 '유감'을 표명하며 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을 시사했다. 이렇듯 파쇼권력의 태도는 단호하고 완강하다. 현재의 '국가'는 근대사회의 산물로서, 새로운 계급 즉 부르주아지의 등장과 함께 이들이 자신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타계급을 효율적으로 사회질서내에서 지배하기 위하여 사회보다 우위에 서는 공권력을 계급지배도구로서 내세우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국가는 계급간의 적대성과 비화해성을 사회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는 경찰, 상비군, 행정관료라는 물리적 무장도구를 가지고 국가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폭력적인 일상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강경대군의 죽음은 이러한 '파쇼권력'이 지니는 정치적 억압도구의 하나인 경찰의 폭력적 일상업무를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인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군사 반목적 억압기구의 성격을 갖는 파쇼권력과 이를 보장하는 정치적 억압기구가 존재하는 한 '강경대의 죽음'은 앞으로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비상대책회의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급과 계층의 정적 제련과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파쇼권력내부에 있는 물리적 형태의 정치적 억압기구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집중



◇야당은 당파적인 중간평가 연기, 5공 청산타결 등 솔한 변절의 모습을 보여왔다. (한겨레 신문)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경찰법과 보안법을 임시국회개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당입장을 표명했으며 보안법개정에 대한 공판 검사들의 강력한 반발 등은 정권의 기만성을 여실히 반영해주고 있다.

한편 일민 투쟁하고 야합하는 보수부르주아 야당의 대표자인 신민당은 비상대책회의의 노조적인 투쟁을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며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러한 투쟁의 경험은 남한 변혁운동전역에 대중의 항의에 찬불만과 저항을 조직화 시킬 과학적 틀, 즉 권력을 담당할 조직의 건설을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로 부여했던 것이다.

현재, 강경대군의 죽음을 계기로 운동전역은 수세에서 공세로, 각 계급, 계층의 50여개의 대중단체가 모인 현재의 비상대책회의는 과거 국민운동본부에 보수가

당의 대중지배력에 크게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보수야당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폭회의내에서 노동자계급이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선'의 이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운동전역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완강한 민중투쟁의 단결대오를 계속 유지해야한다.

거역할수 없는 민주주의

민중투쟁의 단결대오 유지해야 야당, 대권향한 기회주의성 노골화

해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안기법, 노동법등 제반 반민자국법 철폐투쟁을 구체화하고, 경찰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촉구해나가야 한다.

II. 무엇을 할 것인가?

내무부장관 경찰과 시위집단방식의 개선, 노태우정권의 사과발언으로 기민하게 기민적 수습책을 마련하고 부르주아언론과 체제수호 지식인을 이용, 대민심리전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대국민통제망을 구축하고 있는 파쇼권력은 한진중공업 박창수노조위원장의 투신으로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자 초강경 대응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규집 검열중장은 분신자살을 부추기는 불순세력의 배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절대다수 국민이 경찰에 국법질서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이상 경찰은 어떠한 집단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5월9일 총파업투쟁의 원천봉쇄를 선언했으며 수원지검은 '박창수씨사의 부검을 방해한 주동자들을 전원 구속하

독재정권의 수난자임을 강조하면서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원내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기회주의성을 노골화하고 있다. 현 총재인 김대중씨는 그동안 중간평가 연기, 5공청산의 대타협, 이로운 김영삼씨의 변절과 민자당 창당을 있게한 파쇼권력의 동조자이다. 김영삼씨도 민자당내에서 내각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패권에 따른 입지강화를 위한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거의 민주투사의 역할을 아직도 자처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민중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이며, 배신적 모습일뿐이다.

III. 민중투쟁 단결대오의 구축을 위하여

87년 6월항쟁 당시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연일 쏟아져 나온 광범위한 저항은 이를 목적으로의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운동의 지도부의 부재로 기만적이고 개량적인 6·29선언안에 굴복하고 말았다. 결국 전국민적 위기(National Crisis)는 대통령선거를 통해 임원적으로 해소되고 말았다.

또한 '전선'의 이완을 급속히 확장한 전선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가두투쟁과 더불어 근거지 투쟁을 조직화해야한다. 주요 공장 및 집지역과 비상대책회의가 있는 연세대와 명동성당을 근거지로 투쟁의 의지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한 4천만 연연연대투쟁의 성립여부가 정세반전의 성패를 가늠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민중투쟁의 전선을 유지·강화해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강 전 조
(한국 정치경제연구회 연구원)

朔風

참 언론의 역할과 36들의 나이

생일 케익 위에 서른여섯을 밝히는 촛불이 태워졌다. 왕성한 의욕을 가질 서른 여섯은 무엇을 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나이이다.

5월 12일은 대학주보 창간 36돌의 기념일이였다. 일정기간 대학주보에 몸담았던 동문의 한 사람으로 대학주보 창간일은 남다른 감회를 던져준다. 그것은 아름다운 희화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골 깊은 상처의 자기 반성일 수도 있다.

오늘날 전국에는 각종 일간지를 비롯한 무수한 종류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그들은 나름의 목소리로 주의주장을 편다. 그러나 신문 발행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던가. 그래서 개인의 형태든 법인의 형태든 자본을 필요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본의 출처에 따라 개인자본과 독점자본,

국가자본, 종교자본으로 대별된다. 드물게는 국민을 주주로서는 국민자본 언론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 돈을 댔든 종교단체가 설립했든간에 언론으로서의 위치와 양상을 가져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들 대부분은 자산가로서 위치하여 기업의 이윤이나 정부의 이득을 대변하려 한다. 여기에 우리 언론의 비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주 조선일보사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항의와 시위가 빚발쳤다. 민족언론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독자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먼 보도들로 우리를 실망시켰었다. 예상보다 끈질긴 민중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강경대처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발맞추어 언론 역시 사대 보도에 상당히 미온적이

다. 차라리 우리의 언론은 국민의 대변자라기보다 정권옹호자라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리의 언론이론은 독자성이 결여되어 있고 저마다 자기 기업체나 종교단체의 선전 및 이익옹호에 열을 올린다. 표면상으로는 한국언론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집권세력을 지지하여 정권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들은 정작 중요한 시사 문제의 보도 논평에는 안일해 국민의 의식수준을 저하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자로 유도한다. 이것은 바로 집권세력이 바라는 언론정책이 아니던가. 어쩌면 우리의 언론은 우리를 의면한 채 저만치 뚫 떨어져 언론이기를 거부하는가. 민의를 배려하지 못하는 언론이라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밖에 지니지 못하지 않던가.

언론은 독립되어야 한다. 언론이 독립되어야만 언론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고 편집자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일 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마저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이라면 이미 그릇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린것들을 방안에 가두고 밥벌이를 나가야만 하는 가난한 부부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자식을 정권의 손에 매앗을 죽게 한 부모의 슬픔을 감아한다면 오늘 우리 언론들이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서른 여섯은 무엇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이이다. 오늘 정열 가득한 서른여섯의 대학주보에 그런 기대들을 모아 본다.

(明淵)

늦은 저녁, 술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고도 물 한바가지 뒤집어 쓰고 나서 밤새 공부에 몰두한다

적극적인 삶, 몰두하는 젊음 —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학구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이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삼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문에서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고
고급,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미래를 이끌 뜨거운 가슴과 진지한 눈빛의
젊은이들처럼 삼양그룹은 진취적 기상으로
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SAMYANG GROUP

● 주식회사삼양사(化纖, 電機, 飼料, 水産, 精密化学) ● 삼양중주주식회사 ● 삼일포도주주식회사 ● 삼성식품화학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식회사 ● 신원제분주식회사 ● 대한삼미미분 ● 삼양종합연구소 ● 양평회 ● 수양정화회